



부모의 마음으로 기록하는 육돈일기

〈화진농장〉 김만래(49) 대표는 어린 시절, 한우를 키우는 아버지를 도우며 축산인의 꿈을 키웠다. 김 대표는 대학 시절 함께 축산업을 공부한 친구들과 돼지농장에서 우연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돼지와 눈이 맞아버렸다. 그 후로 지금까지도 한돈만 바라보는 한돈바라기가 됐다. 한돈에 대한 애정으로 이뤄낸 한돈 축산 달인의 비결을 들어본다.

화진농장 대표
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

김만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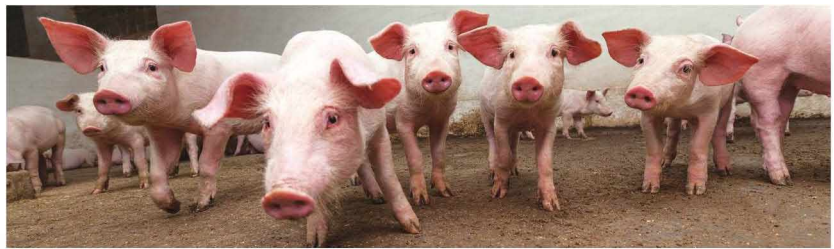
홍아름 사진
엄대현



06:30

한돈의 등급을 높이는 저울 측정

어린 시절부터 축산의 꿈을 키워온 김 대표는 부경양돈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며 <화신농장> 운영의 밑거름을 쌓았다. “당시 돼지농장 지도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농가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축산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.” <화신농장>은 돼지의 체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출하 시 전자저울을 이용한다. 컨설팅 업무 당시 전자저울을 이용하는 축산인을 만난 뒤로 나중에 꼭 직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그리고 4년 전부터 전자저울로 1두씩 체중을 측정하기 시작했다. “보통 농가들은 눈대중으로 등급을 예상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체중은 저울로 직접 측정해 볼 수 있고, 등급에서 체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한 마리씩 옮겨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, 서로 인사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이 더욱 애뜻해집니다.”



16:00

최고의 한돈 생산을 위한 무한도전

10년 동안 생산자의 길을 걸어왔지만, 김 대표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.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,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많다. “지금도 시설이 보잘것없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자는 마음을 갖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” 특히 생산성을 해치는 원인 중 하나인 돼지 소모성 질병은 김 대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주변에 다른 양돈장이 없는 독립된 농장에서 한돈을 키우는 것이다.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독립된 농장을 매입했고, 3월 중순부터 새롭게 공사할 예정이다. “시설을 현대화하고 관리해 본격적으로 최고의 한돈을 만들 계획입니다. 한돈을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좋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운 한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”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는 김 대표가 이뤄낼 한돈 축산의 노하우가 많은 축산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. ☺





13:00

자식 대하듯 애정을 쏟는 게 비결

돼지들을 돌보고 난 뒤 작업실로 돌아온 김 대표는 현장에서 찍어온 것을 칠판에 기록하며 일과를 마무리한다. 칠판은 <화신농장>의 축소판이리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장의 일과가 모두 기록돼있다. 주차별로 색색의 자석을 이용해 173두의 현 상태를 나타냈다. 자석판 하나는 한 마리의 돼지를 의미한다. 자석에는 교배 시기, 자식 수 등 7 돼지의 역사가 모두 적혀있다. “173개의 자석판을 주차별로 배열하고, 그 주에 태어나야 하는 새끼돼지의 생산량을 채우지 못할 때는 후보돈으로 맞추기도 합니다. 이처럼 부족한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9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.” 김 대표는 기록을 통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HACCP과 친환경 농장 인증을 받았다. 또 부경양돈에서 매달 나오는 농가의 순위를 확인해 자극제로 삼는다. 순위는 부경양돈에 등록된 60개 농가의 출하도수와 등급 등을 합산한 결과로 매겨진다. 이를 확인하면서 더 나은 한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